



# KAMUY LUMINA

AN ENCHANTED NIGHT WALK  
AT LAKE AKAN



## KAMUY LUMINA의 배경

배경은, 홋카이도 ‘아칸 마슈 국립공원’. 화산과 숲과 호수가 빛어내는 원시적인 자연이 넘쳐나고, 일본에서 산소 농도가 가장 높다는 신비로운 지역.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이 탄생한 193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그 대부분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KAMUY LUMINA의 본거지는 아칸 호반. 이곳은 일본의 선주민족인 아이누와 일본인이 함께 지역 만들기를 실천해 온 역사를 지닌 지역입니다. 1957년, 아칸호 환경 보전에 노력한 마에다 잇포엔 재단의 마에다 미쓰코 씨는, 현지 아이누 민족에게 토지를 개방하고 목각 작업장 등을 제공. 아이누 민족의 자립을 지원한 덕분에 지금도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칸호에 위치한 아이누코탄(아이누 마을)에서는 고식 무용이라 불리는 전통 춤과 뭇쿠리(구금: 口琴), 톤코리(오현금: 五弦琴) 연주 등 대대로 이어 내려온 문화를 지금도 계속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누 민족은 문자가 없는 대신에 ‘유카르’라 불리는 서사시를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 전하여 그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짧은 것부터 읊는 데 며칠이나 걸리는 유카르도 있는데, KAMUY LUMINA의 스토리는 아칸호 아이누 마을의 시타쿠 야에 씨가 읊은 ‘대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어치의 신화’를 토대로 합니다.

KAMUY LUMINA 구역에서 흐르는 ‘후운코 훈코 후운코’라는 멜로디는 섬을 빼미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것으로, 시타쿠 야에 씨 본인이 읊은 유카르의 음원을 사용합니다. 또한 그녀의 친척인 다이라 도모코 씨가 KAMUY LUMINA를 위해 새롭게 이 유카르를 레코딩. 와타나베 가요 씨, 도코 에미 씨, 고우콘 후키코 씨 등 아칸호 아이누 사람들의 뭇쿠리, 톤코리 연주와 노래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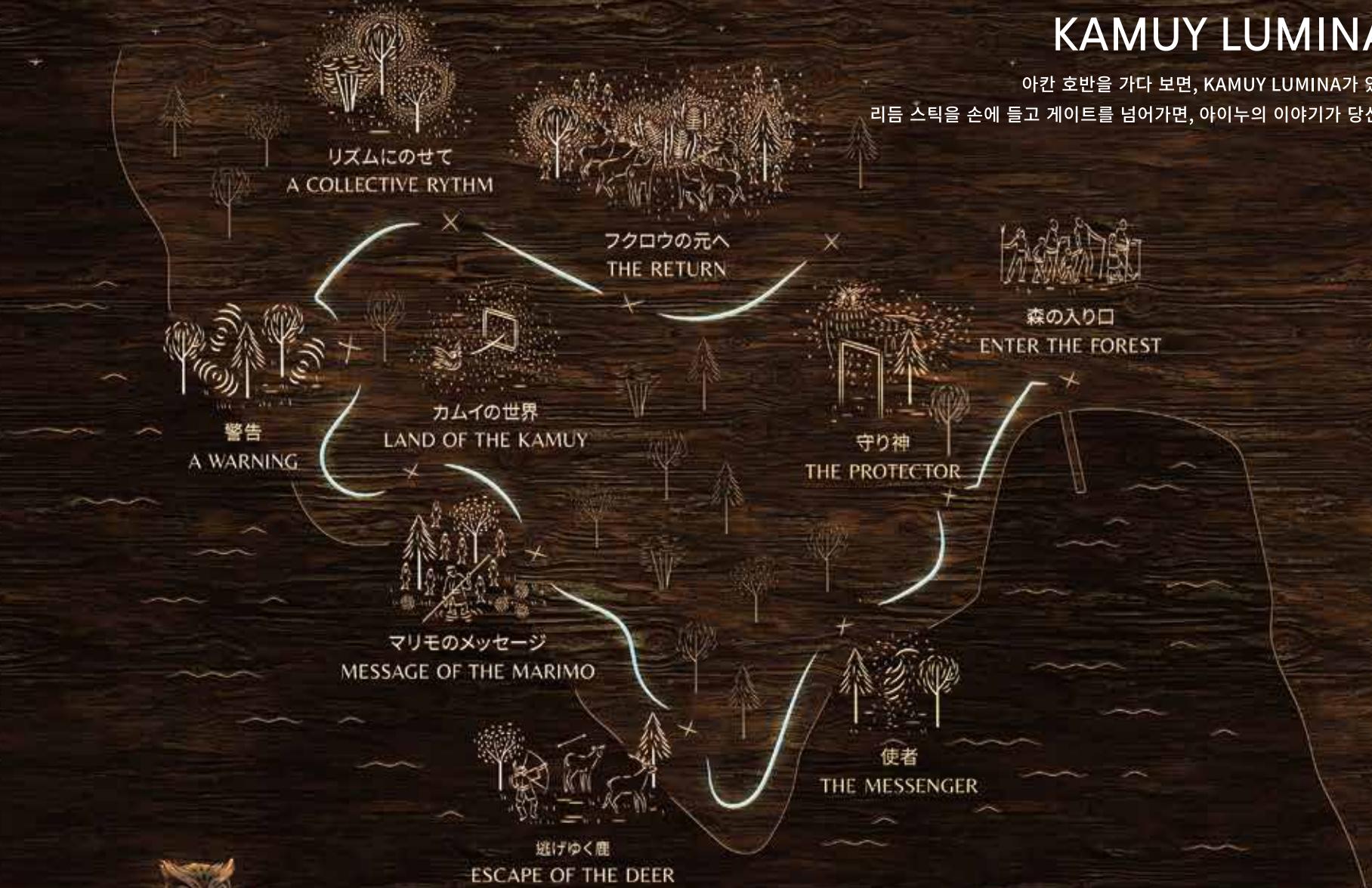
KAMUY LUMINA는 아칸호 아이누 민족과 그 다른 일본인, 그리고 캐나다의 MOMENT FACTORY가 손을 잡고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혁신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 수익금의 일부는 자연환경 보호 활동과 아이누 문화 진흥에 기부되어, 이 숲과 호수의 보전 및 아이누 문화 발전에 활용됩니다.



# KAMUY LUMINA의 세계

아칸 호반을 가다 보면, KAMUY LUMINA가 있는 숲에 다다른다.

리듬 스틱을 손에 들고 게이트를 넘어가면, 아이누의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어치

올빼미의 전령사인 어치는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카무이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어치의 꿈이었으나, 노래의 박자를 맞추는 게 서툴러서 단념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는, 그를 돋는 역할을 우리 방문객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이 모험을 통해 어치는 여러 가지를 배워, 새로운 자신으로 진화해 갑니다.



## 올빼미

KAMUY LUMINA의 길잡이인 올빼미는 '코탄코로 카무이'라 불리며, 아이누 부락 전체를 수호하는 신입니다. 아칸호에 위치한 아이누코탄(아이누 마을) 입구에서도 커다란 올빼미 목각상이, 오늘도 마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KAMUY LUMINA의 올빼미는 어치의 숨겨진 영웅 기질을 발견하여, 카무이의 세계로 심부름을 보내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 KAMUY LUMINA의 이야기

‘카무이’란 아이누어로 신을 의미한다.

인류는 결코 갈 수 없었던 카무이의 세계. 미지의 모험이, 지금 시작된다.



1

## 「수호신」

굶주림이 닥친 인간계. 마을의 수호신인 올빼미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카무이의 세계로 메시지를 전해 줄 전령사를 찾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쑥독새가 후보를 자청하고 나섰지만, 올빼미는 뿌리칩니다. 그러다 들려온 아름다운 멜로디. 그 노랫소리와 빛의 발자취를 좁아 숲 속으로.



2

## 「전령사」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어치. 말이 빨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올빼미는, 겨우 어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박자를 잘 못 맞춘다는 고민이 바로 그것. 올빼미는 우리 방문객들에게 어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간청합니다. 카무이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3

## 「도망치는 사슴」

깊은 숲 속, 나무 사이를 달려 지나가는 사슴들. 화살을 쏘아, 사슴을 잡으려 하는 아이누. 그러나 사슴들은 화살을 받아주지 않고, 차례차례 카무이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올빼미는 이 세계에 머물도록 사슴들에게 말을 걸지만, 그 마음은 닿지 않아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4

## 「마리모의 메시지」

호숫가에 도착하자, 물고기들이 나무를 타고 카무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때, 모두를 도우려고 야간호의 천연기념물 ‘마리모’가 나타났습니다. 마리모가 연주하는 박자를 잘 듣고 같은 박자를 탈 수 있다면, 물고기들이 돌아와 줄지도 모릅니다.

# KAMUY LUMINA의 이야기



5

## 「카무이의 세계」

카무이의 세계에 다가갈수록 숲이 반짝이고, 환상적인 빛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러더니 카무이의 세계와 아이누의 세계를 잇는 신성한 창 ‘신의 창문’이 눈앞에. 어치는 이 신의 창문을 빠져나가, 무사히 카무이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6

## 「경고」

카무이의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내려주는 카무이와 사슴을 내려주는 카무이. 동물에 경의를 표하지 않고, ‘오큐리’라는 기도 의식을 게을리 한 인간에게 노한 카무이는, 동물을 인간계에 내려 보내는 일을 멈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나쁜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굶주림은 이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7

## 「박자를 타고」

카무이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자, 어치의 모습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올빼미. 동물들의 혼이 이 세계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박자를 맞추도록 재촉당합니다. 그러자 멀리에서 아련히 어치의 소리가. 어치의 빛의 밭자취가 지금까지와는 원가 다른 것 같습니다.



8

## 「올빼미 곁으로」

드디어 동물들이 숲에 돌아와, 풍성한 자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어치는, 과거의 침착하지 않은 모습에서 확 바뀌어, 유창한 말솜씨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어치는, 인내심 강하고 책임감 있는 자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도 신들에게도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